

口緣部를 밖으로 말아서 머물렀고 목은 짧고 胴部는 膨大되어 있다. 형태 면에서 보면 膨大한 胴部는 初期 도마리의 요지 파면에서 볼 수 있는 靑華白磁 菊草文八角瓶(이 조도자보) 도판(二七)이나 靑華白磁蘭草文八角瓶(세계도자全集) 十四卷 도판(九八)보다는 훨씬 膨大하였고 亦 初期手法인 靑華白磁竹蘭草文八角瓶(이 조도자보) 도판(二五) 靑華白磁仙挑文八角瓶(이 조도자보) 도판(二六) 靑華白磁梅竹文八角瓶을 보다는 若干 팽대하여 있다. 文樣은 瓶兩面에 二個의 四稜形으로 된 開窓內에 각기 화제가 다른 山水文을 主文樣으로 배치하였고 이 稜形開窓 사이의 器底로부터 전체 길이의 1/4쯤 되는 위치에는 平行雙線을 그어서 그 위에 竹文을 배치하였다. 主文樣인 이 稜形開窓은 거의 胴部全面을 차지하였고(主高的 1/2) 이같은 開窓구역의 擴大는 初期에 屬하는 開窓보다 훨씬 擴大되어 있다. 初期瓶類에 나타난 稜形이나 圓形의 開窓이 전체 높이의 약 1/3強(고적도보) 一五권, 一三(八三頁)「이 조도자보」도판(一), 동도판三「고적도보」十五권(二二四頁右端)이던 것이 여기에에선 1/2로 늘어나서 그面積은 2배쯤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두 稜形開窓을 연결한 가로 그은 두개의 선만은 前掲 初期의 八角瓶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고 문양 自體로 보면 開窓의 一面은 누각산수요, 다른 一面은 人物山水圖이다. 이와같은 구도의 누각山水圖는 金沙里代의 製作으로 생각되는 靑華白磁山水文注子瓶(민병도씨 소장)과 靑華白磁山水文壺(이 조도자보) 도판(一九) 등에서 보이며 明代의 靑華文樣에서 轉化된 그림으로서 그림 자체는 分院期에 흔히 보는 三山形의 山水文이 아닌 비교적 格調있는 中國山水畫風이다. 窠外面에는 靑華로 一線을 돌렸고 窠안은 약간 길으며 이 窠안 한쪽에 치우쳐 청화로 「丙申」이라는 干記가 써 있다.

以上 考察에서 이 瓶이 대강 李朝前期의 手法과 많은 差異點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丙申이라는 干記와 아울러 생각할 때 대체로 金沙里時代末로 比定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四稜形의 구획이 最大로 넓어졌으며 그 안에 문양을 가득 그린 것은 文樣을 아낌없이 그리던 分院期의 手法과 흡사하나 文樣自體가 分院期에 比해 細筆로 간결하고 品位있게 그려져 있다. 또한 分院期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二개의 四

稜形을 연결한 橫線을 그었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린 것 등은 오랜 手法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취이다. 靑華의 發色에서도 初期보다 맑지는 못하고 조금 칙칙한 곳이 있지만 대체로 고운 便으로 分院期에 一般的으로 나타나거나 紫色이 감도는 發色과는 다르고 分院甲燻의 곱기만한 靑華보다 약간 검은 빛이 있다. 유약에 있어서도 金沙里一般의 밝고 광택있는 유약과 다르나 分院一般의 帶靑灰白釉나 또는 水裂이 있고 광택있는 帶淡靑의 유약이나 甲燻과 같이 氣泡가 많고 帶淡靑을 띄운 고운 유약보다 深味가 있고 安定味가 있다. 굽의 정리에선 窠外邊에 一線을 둘러는 것은 中期以後에 나타나서 一般的인 手法이며 그것은 分院期에도 담습되거나 窠內을 파내는 것은 分院期에 흔히 나타나서 手法으로 대체로 中期에서 부터 始作되는 手法이다. 그러므로 筆者는 이 瓶은 分院期로 넘어가는 過渡期的인 것으로 보고 싶다.

丙申年은 孝宗七年(一六五六), 肅宗四二年(一七一六), 英祖五二年(一八三六)이 이에 該當함. 分院의 初를 英祖二八年(一七五二)으로 본다면 以上 三個年代中 英祖五二年은 이미 分院期에 들어간 뒤이고 孝宗七年(一六五六)代의 作風보다는 分院期에 가까우므로 肅宗四二年(一七一六)에 比定코자 한다.

瓶高二·七cm 口徑三·二五cm 底七·四cm 胴一三·〇cm 口緣에 一部 수리가 있다. 모래받침
(追記 이 調査는 一九六四年 九月二四日 全南光州市 權小兒科病院長宅에서 하였음)

慶州 狼山西麓의 磨崖三像

鄭 明 鎬

一九六三年 三月初 어느 따뜻한 봄날 然齋先生을 따라 狼山周邊에 散在하고 있는 遺蹟址를 踏査한 일이 있었다. 그때 특히 狼山西麓寺址의



(註) 北面 丘陵 南側岩壁에서 磨崖三像을 주목하였다. 이 三像中 中央像은 結跏趺座한 如來像으로 推定되는데 素髮에 肉髻는 낮고 넓게 퍼져 얼듯 肉髻가 없는 듯이 보인다. 귀는 보이지 않고 細眼의 눈두름은 불룩하고 코는 龜裂로 破失되었다. 口唇은 微笑를 짓는 듯 하며 양볼은 오동통하다. 法衣는 通肩으로서 左肩上에 한겹 뒤집혀 걸쳐있고 衣襞은 二條로 左胸앞으로 내려 中央으로 흘러

내렸으며 胸部에는 若干낮은 裙衣帶가 있고 左側팔에는 一條의 衣紋이 있다. 左側衣襞은 右肩에서 무릎위로 걸쳐내려 膝部를 덮어 발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목에는 三道가 있는 듯하다. 像後面에는 圓形의 頭光과 身光이 陰刻되어 있다. 다음에 左右의 兩脇侍像은 모두 主尊을 向하고 甲衣를 입고 있다. 左像은 팔뚝머리에 귀는 廣長하며 鳳眼에 코는 비교적 높다. 목에는 圓形의 옷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경주의 八部象或은 十二支像에서 흔히 볼 수 있다. 左手는 무릎위에 올려놓고 右手는 劍을 잡고 結跏坐한 듯하다. 右像은 遊戯坐하고 兩手로 三叉戟을 잡는 듯하며 衣紋은 左像과 같다. 頭部는 마치 印度人들의 「타반」같은 形態

의 것을 쓴 듯 하며 눈은 부릅떴으며 코는 매우 높다. 이들 兩像은 모두 武器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 神將像이 아닌가 한다. 主尊像은 密敎系統의 彫刻이 아닐까 하며 新羅統一期の 作으로 推定한다. 이들 三像은 동시에 이곳 寺址 및 南方의 築石壇形 遺址와의 關係에서 注目되어야 할 것이다. (三像總高各 八八cm, 主尊光背全高와 同幅 九〇cm)

(註) 本誌 第五卷 八號 資料 「慶州 新羅石佛立像蓮座 二例」 參照

粉青砂器 「義興」銘器 三例

姜 敬 淑

粉青砂器에는 官廳名들이 銘記된 例가 많다는 事實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 中에는 官廳名뿐 아니라 地名이 같이 걸려 있는 것이 있어서 이에 對하여 늘 注意를 기울리 할 수 없었다.

昨年十月과 今年二月에 걸쳐 「義興仁壽」、「義興長興」、「義興長」銘文이 있는 粉青砂器 사발과 접시들을 市內 某骨董商에서 調査撮影한 機會가 있었기에 簡單히 紹介코자 한다.

三點 모두가 同一한 手法이며 역시 같은 가마에서 구어졌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먼저 「義興仁壽」銘 접시는 높이 三·九cm, 口徑 十五·二cm 口徑 四·二cm, 口徑 높이 〇·九cm로서 그릇內面 中央바닥에 縱書一行으로 「義興仁壽」의 四字를 白土嵌入了하였고 그 주위로는 菊文을 印花하고 다시 그 밖으로는 蓮圈文과 口緣에는 草葉文을 白象嵌으로 처리하였으며 裏面도 連圈文으로 器面을 처리하고 있다. 全體의 色調는 灰靑에 灰黃이 약간 감도는 比較的 光澤이 좋은 접시이며 白土의 嵌入이 흩어진 곳이 많은 低質의 磁器이다. 釉藥은 失透性的인 粉靑系 釉藥이다. 比較的 부드러운 胎土를 使用하였고 口緣에는 四個의 흩비진눈을 使用한 흔적이 있고 口內 물레의 자국과 釉藥이 있는 口形式을 보여주고 있다.